

韓 국민 10명중 3명 '나 혼자 산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발표 작년 1인 가구 수 562만·비율 28.5%... 2015년부터 주된 가구 형태 고령화 비율 높은 읍·면·동 증가세 두드러져... 동에서 2배 이상 ↑

국민들 중 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 수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562만 가구로 2000년(222만 가구)보다 152.6% 뛰었다. 같은 기간 일반 가구 수는 1431만 가구에서 1967만 가구로 37.5% 증가한 데 비해 증가세

가 두드러진다. 일반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15년 27.2%를 기록하면서 주된 가구 형태가 됐다. 2000년 15.5%를 기록한 후 지속해서 증가해 온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에는 28.6%를 차지하며 30%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 남자 1인 가구는 2000년 95만 가구에서 지난해 279만 가구로 2배 가까이(195.4%) 늘었다. 여자 1인 가구 수 역시 같은 기간 128만 가구에서 283만 가구로 120.9% 올랐다. 남자 1인 가구의 경우 25~34세 비

율이 2000년 37.9%에서 지난해 23.8%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밖에 21세 이하, 22~24세, 35~44세 연령대 비율이 같은 기간 모두 감소했다. 반면 45세 이상 연령대에선 남자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했다. 여자의 경우 75세 이상과 45~64세 연령대에선 비중이 증가했지만 65~74세 비중이 23.7%에서 16.0%로 떨어졌다. 일반 가구의 가구원 대비 1인 가구 비율도 지난해 11.6%를 기록하며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다. 남자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

4.3%에서 지난해 11.6%로 7.3%p 늘었으며 여자 1인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5.6%에서 11.5%로 5.9%p 증가했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 읍·면·동에서의 1인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동 지역에서 일반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4.6%에서 지난해 28.0%로 2배 가까이 늘어 같은해 읍 지역(27.8%)을 따라잡았다. 같은 기간 면 지역에서의 일반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도 20.9%에서 34.0%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 일반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강원(32.2%), 경북(31.9%), 전남(31.6%) 순으로 높았다. 해당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은 2015년 강원, 전남, 경북 3개 지역에서 지난해 서울,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으로 증가했다. 해당 비율

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전으로 2000년 15.2%에서 지난해 31.5%로 2배 이상 늘었다. 그 뒤를 광주(15.1%p), 부산(14.9%p), 서울(14.7%p)이 이었다. 2000년에는 1인 가구의 70.2%가 '단독주택'에 거주했으나 이 비율은 지속해서 감소해 지난해 49.2%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18.1%에서 28.6%로 10.5%p 늘었다. 아파트 거주 비율은 특히 55세 이상 연령대에서 15.0%p 이상 크게 증가했다. 반면 22~34세 연령대에선 소폭 감소했다. 한편 '연립 및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각각 5.3%p, 4.1%p 증가했다. 이 두 경우는 같은 기간 일반 가구보다 증가 폭이 컸다. /김영태 기자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푸드트럭 사업자 모집

지스타사무국은 오는 11월 15~18일 4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지스타 2018' 내 푸드트럭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푸드트럭 운영 기간은 지스타가 개최되는 4일간이며, 운영 장소는 벡스코 제전시장 야외주차장이다. 모집 대상은 푸드트럭 영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개인으로 ▲국내 거주 내·외국인으로서 차량구조 변경 승인 등 푸드트럭 영업허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자 ▲오프라인 상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자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이 아닌 자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10월 5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스타사무국은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을 통해 푸드트럭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 양식을 포함한 푸드트럭 모집 관련 상세 내용은 지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시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향후 30년 좌우"

김상조 "현실 적합성 가다듬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8일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38년 만에 전면 개정이자 향후 30년간 우리의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작업은 이제 시작된 만큼, 현실 적합성을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예고안은 전면개편을 위한 입법절차의 출발점이다"며 "앞으로 입법절차나 공론화 과정에서 보다 정교하고 현실에 적합하도록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의견 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의견들이 정부 개정안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완성된 모습을 갖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가

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법집행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4가지 원칙에 기초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방향 아래 행정제재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형사와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고 역할을 분담해 시스템을 재구축하고자 했다"며 "경쟁법 집행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부분폐지하고, 과징금 상한 상향으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했으며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 민사구제 수단도 대폭 확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시책 개편에서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규율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했다"면서 "일부 예외사례를 시정하고자 전체 기업집단에 일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과잉규제도 지양하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정위 법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조사재량도 줄이고자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당국의 분석역량을 높이고,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혁신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기업관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했다. 공정거래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참석대상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농업인 현장지원 '출동'

고창 농가서 고구마 수확도와



전북농협이 지난 28일 고창군 성송면 이상수 농가를 찾아 고구마 수확 등 농촌 일손 돕기를 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28일 농협고창군지부, 지역본부 상호금융단, 고창 관내 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30여명은 고창군 성송면 이상수 농가를 찾아 고구마 수확 등 농촌 일손 돕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문식 농협고창군지부장은 "지난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고구마 작황이 전년대비 50% 수준이다"며,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손돕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정부, PD 제도 개선한다... 오늘부터 시행

국채시장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는 장기물 발행 비중 확대, 시장 불확실성 증가 등에 대응해 국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고채전문딜러(PD)'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는 PD(社) 및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 협의 및 국조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됐다.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엔 장기물 거래를 활성화하고 PD 평가 기준을 합리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포

는 분석에서다. 인수·교환·매입시 평가 모수를 현행 '발행물량(낙찰)'에서 '예정물량(공고)'으로 변경한다. 평가 모수가 사전에 확정되면 응찰 물량을 결정할 때 실수요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담보된다.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epo, 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 시장의 질적 개선도 도모한다. 레포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단기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PD 평가 시 가점 항목 중 기일물 레포 거래에 대한 가중치를 1.5배에서 2배로 확대한다. 또 장래 레포 거래의 담보 대상 채권에 국고채 스트립 원금채와 이자채를 추가한다. /김영태 기자

한은 전북본부, 3/4분기중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내 업체 및 유관기관(총 55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8년 3/4분기중 전라북도 경기는 2/4분기보다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반기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와 건설투자가 감소, 설비투자는 보합을 보였으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3/4분기중 전국 권역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수도권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등 다른 권역은 모두 보합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동남권, 제주권은 소폭 악화되는 움직임을 일부 보였으며, 강원권은 전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완만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모니터링 결과는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9월)에 수록되어 있고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조사, 연구자료-종류별 자료-계간-지역경제보고서'로 접속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

구독·광고문의 288-9700